

과수 꽃 피는 시기 기상 변동 주의

농진청, “배꽃 활짝 피는 시기, 평년보다 약간 빠른 4월 초중순 전망”

농촌진흥청(청장 김재환)은 올해 과일나무 꽃이 활짝 피는 '만개(滿開) 시기'가 평년과 비슷하거나 빨라질 전망이다. 지역 간 편차가 크고 최근 기상 변동이 심한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예측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1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의 기상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개발한 △복숭아 △배 △사과 작목의 특성을 고려한 생물계절 예측 모형 적용, 분석한 결과다.

복숭아 '유명' 꽃이 활짝 피는 시기는 △전북 전주 4월 8~10일로 가장

빠르고 △경북 청도 4월 12~14일 △경기 이천 4월 17~19일 △강원 춘천은 4월 18~20일로 예측된다.

배 '신고' 꽃이 활짝 피는 시기는 △울산 지역이 4월 7~10일로 가장 빠르고 △전남 나주 4월 10~13일 △경기 이천, 충남 천안은 4월 15~21일로 전망된다.

사과 '후지' 꽃이 활짝 피는 시기는 △경남 거창·대구 군위가 4월 18~20일로 가장 빠르고 △전북 장수 4월 20~22일 △경북 영주·충북 충주 4월 21~23일 △경북 청송은 4월 28~30일

로 예상된다.

과수 농가에서는 기온이 상승하면 눈 트는 시기와 꽃피는 시기가 예상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갑작스러운 저온에 꼼꼼하게 대처해야 한다. 꽃이 예정보다 빨리 폼을 때 예상치 못한 저온이 발생하면 열매 달림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늦서리나 저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기상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농가에서는 미세살수(물 뿌림) 장치나 방상 팬(서리방지 팬) 등 재해 예방 설

비를 미리 점검해야 한다.

사과는 꽃털기 가운데 꽃(중심화)보다는 저온에 비교적 강한 가지 옆쪽 꽃(측화)에 인공수분을 실시해야 열매가 안정적으로 달린다. 꽃가루 운반 곤충은 인공수분 7~10일 전 과수원에 방사한다. 과수원에 핀 잡초 꽃을 미리 제거하면 곤충이 사과꽃 쪽으로 이동해 수분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작물부 김대현 부장은 “과수 재배 농가는 작목별 꽃 피는 시기에 맞춰 기온 변동에 철저히 대비하는 등 과수원 관리에 힘써 열매가 안정적으로 달리도록 유도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김옥기 기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화학섬유기업인 (주)휴비스(대표 김석현)가 전주형 착한 소비자 운동인 전주함께장터 프로젝트에 힘을 보탰다.

휴비스, '전주 함께장터' 동참

전주형 착한 소비자 운동... 기부금 1000만원 전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화학섬유기업인 (주)휴비스(대표 김석현)가 전주형 착한 소비자 운동인 '전주함께장터' 프로젝트에 힘을 보탰다.

전주시와 (주)휴비스는 28일 전주시시장에서 우병기 전주시장과 백승덕 (주)휴비스 전주공장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휴비스 함께장터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주)휴비스는 기업·시민·소상공인이 함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노동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범시민 참여 운동인 '전주함께장터'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1000만 원의 기부금을 전주시에 전달했다.

'전주함께장터' 프로젝트는 △기업이 이끄는 소비와 나눔 잔치 △혁신공공기관과 함께 골목상권 살리기 △전주 골목상권 드림축제 △전주시 자생단체·봉사단체의 전통시장 장보기 △노동자를 위한

간식응원단 '함께브런치' 등으로 구성을 해 연중 추진되고 있다.

이날 전달된 (주)휴비스의 기부금은 '전주함께장터'의 기획 취지에 맞춰 전주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사)대한드론축구협회가 동산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며, 지난 25일에는 (유)코스텍스가 팔복동 읍안경로당을 방문해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점심식사와 생필품을 기부하는 등 전주함께장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과 더불어, 아동노동자·플랜터노동자 등 각계각층을 응원하는 '노동자 기(氣) 살리기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김옥기 기자

전북은행, '군산시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55억원 규모 금융지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군산시 소재 소상공인들을 위해 군산시 및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55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은행은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2억원을 특별 출연했으며 총 55억원 규모의 '군산시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26일부터 상담접수를 시작하는 군산시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은 군산시 소재 업력 3개월 이상, 대표자 개인신용 평점 879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5,50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최대 5년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군산시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사업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고자 특별출연을 결정하였다”며, “전북은행은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도 유동성 공급 강화 및 지역민의 금융요구를 해소하고 상생경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은행 고객센터(1588-4477)에 문의하면 된다.

/이민호 기자

제1회 전북 바이오포럼 개최... 도와 바이오기관 협력의 장 열려

전북특별자치도-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공동 주관... 첫 출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바이오진흥원, 원장 이은미)이 함께 주관한 '제1회 전북 바이오포럼(이하 바이오포럼)'이 3월 26일(수), 전북바이오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바이오포럼은 바이오분야가 산업간 융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과 미래첨단산업국이 전북자치도만의 바이오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기관 간 유기적인 정보 교류와 분야 간 융복합 협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바이오진흥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바이오분야 혁신네트워크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바이오 유관기관별 현안 공유, △바이오산업 애로사항에 대한 협력 방안 모색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으며, 전북지역 바이오기관 간 지속 가능한 연계와 혁신기반 마련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논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이날 포럼에는 전북대학교 오명준 교수를 초청하여 '과거, 기술, 혁신 그리고 정책'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오명준 교수는 급변하는 바이오산업 환경 속 기술혁신과 정책 연계의 중요성을 조망하며, 전북 바이오산업이 나아가야 할 미래 전략과 방향성에

대한 통찰을 공유했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바이오포럼은 기관 간 경계를 넘어 실질적인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전북자치도와 함께 지역내 바이오혁신기관들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한전 임실지사, 'CS 포워드' 발대식... 관촌 이장단협의회와 맞손

한국전력공사 임실지사(지사장 김명진)는 지난 26일 관촌면 이장단협의회와 함께 어르신들의 전력 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임실형 CS체계 구축을 위한 'CS포워드'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서 한전 임실지사와 관촌면 이장단협의회는 CS포워드 활동을 위한 협약을 맺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 마을 이장은 거점 CS포워더로서 한전 임실지사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소통하며, 한전·ON·고객센터 등 비



대면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 고객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

들의 전력서비스 사각지대 발굴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명진 지사장은 “CS포워드의 활약이 벌써부터 기대된다”며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임실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이에 박종일 관촌면 이장단협의회장도 “지역주민들의 전력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기쁘다”며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옥기 기자

하림, 주주총회서 정호석 대표이사 재선임

정호석 (주)하림 대표이사가 사내이사에 재선임되며 대표이사 연임이 의결됐다.

(주)하림은 26일 열린 제1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호석 대표이사의 재선임 안건을 비롯해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정호석 대표이사는 2022년 3월 (주)하림 대표이사에 선임돼 오는 3월 31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하림은 2024년 매출이 1조2337억원,



영업이익은 221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불안한 국제정세와 닭고기 시세 하락 상황에서도 도축MS 확대, FCR(Food Conversion Ratio)과 도계 생산성 개선, 급식과 계란사업 부문 매출 성장 등 시장 대응력 강화와 영업 활성화 노력으로 전년 대비 신산업 매출량과 육가공 매출량이 성장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정호석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인사말을 통해 “물에는 세계 경기침체 우려와 최근 가중되고 있는 금융시장 위기 가능성 등으로 인해 매우 도전적인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철저한 시장 분석과 선제적 리스크관리와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